

노인이 인식하는 좋은 죽음

Good death recognized by the elderly

이명숙, 김윤정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Myoung-Suk Lee(leejung5555@hanmail.net), Yun-Jeong Kim(twoyun21@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좋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좋은 죽음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라는 연구 질문으로 시작 하였다.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350명을 대상으로, 2010년 9월부터 2011년 2월 까지 5개월에 걸쳐 '좋은 죽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단일질문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였다. 전사된 인터뷰 자료를 내용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들이 인식하는 좋은 죽음의 하위범주는 '배우자와 비슷한 시기에 함께 하는 죽음', '어느 누구에게 폐치지 않는 죽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죽음', '적당한 수명을 누리는 죽음', '명을 다하는 죽음', '내 집에서 맞이하는 죽음', '편안한 죽음', '잠자는 듯한 죽음', '아프지 않는 죽음', '임종과정이 길지 않는 죽음', '준비된 죽음', '삶의 최선을 다하고 맞이하는 죽음', '삶을 즐기고 맞이하는 죽음', '베푸는 삶을 살고 가는 죽음', '신앙 속에서의 죽음', '자손이 잘되는 것 보고 가는 죽음'등 16개의 하위 범주가 도출 되었으며, 이는 다시 '주변사람을 배려하는 죽음', '천수를 누리는 죽음', '내 집에서 맞이하는 죽음', '편안한 모습으로의 죽음', '준비된 죽음', '원하는 삶을 누리다 가는 죽음' 등 6개의 범주로 묶여졌다.

■ 중심어 : | 죽음 | 좋은 죽음 | 죽음 인식 |

Abstract

his study has been performed to identify meanings of good deaths among 350 old people aged 65 from September, 2010 until February, 2011. In this study, the subjects were asked about good meanings of death based on qualitative study of free format, and their statements were categorized into similar content areas. The results show that first, the subjects felt that the good death is a dignity death not weighing burdens to others, memorized as a good life, until the end of my life, a death receiving at home, comfortable death, a death like a sleep, without pain, not long, a prepared process, a death after doing my best, receiving after doing my best, death after offering benevolence to others, within my beliefs, and finally a good death is after seeing good life of my descendent. These 16 free answers were also categorized into 6 meaningful areas such as considering others, at my home, comfortable scene, prepared, and death after living my wanted time.

■ keyword : | Death | Good death | Recognition of death |

1. 서론

한국노인의 평균수명은 급속히 늘어나고 과거 20C와는 달리 각 개인이 노년기에 죽음을 맞게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길어진 남은 삶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웰딩과 함께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하면서 ‘언제’ ‘어떻게’ 죽는 것이 좋은지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죽음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발표되었다. 죽음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죽음불안 [1-4], 죽음에 대한 태도 [5-10], 죽음준비교육프로그램 [11-17] 등으로 노인의 죽음에 대한 불안이나 태도 준비에 관한 정보는 있으나, 어떤 죽음을 원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즉, 잘 사는 것과 잘 죽는 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죽음불안이나 죽음준비교육과 같은 연구는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관심의 중심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좋은 죽음’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부족하다.

물론 좋은 죽음과 관련해서 몇 편의 선행연구 [18-23]가 있는데 주로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성인이나 간호사, 간호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4편 [24-27]이 있으나, [26]은 노인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28]은 노인의 소망 중 하나로 좋은 죽음이 있음을 밝혔기 때문에 노인이 인식하는 좋은 죽음의 의미를 밝혔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25]와 [27]이 있는데 [25]는 4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27]은 9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좋은 죽음의 의미를 밝혔다. 이 연구들은 질적연구의 특수성이긴 하나 적은수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로 연구의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다. [25]와 [27]의 연구를 통해서는 다양한 사회계층의 노인이 인식하는 좋은 죽음의 의미를 알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노인 전반이 인식하는 문화와 맥락적 상황에서의 좋은 죽음의 의미를 파악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계층의 노인을 대상으로 문화와 맥락적 상황에서 인식하는 좋은 죽음의 의미를 찾아냄으로서 한국적 문화에서 대다수의 노인이 인

식하는 좋은 죽음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다수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삶의 경험을 그대로 파악하기 위해 질적연구 중 내용분석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단순히 죽음의 차원이 아닌 살아있음의 차원과 관련하여 분석함으로써 노인복지 정책과 서비스 방향을 모색하고 성공적 노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좋은 죽음의 의미

1.1 좋은 죽음의 개념

태어남과 죽음은 모든 인간이 경험해야 할 운명적인 과정이나 되풀이 될 수 없는 경험이다. 따라서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불행인지 어떠한 죽음이 행복한 죽음이고 또 불행한 죽음인지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 [29]. 이는 죽음에 대한 견해가 시대, 문화, 종교, 철학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즉, 생명의 소멸인 죽음은 삶과 상반되는 개념이지만, 죽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그 공동체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죽음관에 따라 문화권을 구분할 수도 있다 [30].

죽음관에 문화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죽음에 관한 개념적 정의를 내린 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31]은 좋은 죽음의 원리를 다음 12가지로 제시하였다. ① 자신이 죽는다는 것과 앞으로의 일을 예상할 수 있을 것 ②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조절력을 가질 것 ③ 존엄성과 사생활을 보호 받을 것 ④ 고통완화와 다른 여러 증상들에 대해 적절한 통제력을 가질 것 ⑤ 어디서 임종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것 ⑥ 어떤 내용이면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⑦ 영적 그리고 정서적 지지를 받는 것 ⑧ 병원에서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호스피스 간호를 받을 것 ⑨ 임종 시 함께 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것 ⑩ 생명연장술 사전선택을 통해 본인의 바람이 존중받는 것 ⑪ 주변사람과 이별할 시간을 갖는 것 ⑫ 무의미한 생명연장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또한 ‘좋은 죽음’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특정사

회, 문화적 그리고 역사적 환경하에서 사회화를 통해 개인이 해석하는 것[32]라 볼 수 있다.

1.2 좋은 죽음에 관한 선행 연구

노인을 대상으로 한 좋은 죽음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노인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좋은 죽음 연구, 죽음관이나 노년기의 소망에 관한 연구, 죽음인식에 관한 연구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였고, 질적연구와 양적 연구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고찰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좋은 죽음’에 관한 연구로는 [25]와 [27]의 연구가 있다. 먼저, [25]는 좋은 죽음의 대주제로 복 있는 죽음을 도출해냈다. 소주제는 부모를 앞선 자녀가 없는 죽음, 자녀가 임종을 지켜주는 죽음, 자식에게 부담주지 않는 죽음, 부모 노릇 다하고 맞는 죽음, 고통 없는 죽음, 천수를 다한 죽음, 준비된 죽음 등 7개로 분석되었다. [27]은 9가지 구조화된 초점 질문을 통해 노인의 좋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였다. 노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의 조건으로는 적절한 수명, 무병사, 자식이나 부인을 먼저 보내지 않고 살다 죽는 것, 수면사, 무통사 등이 있었다.

또한 좋은 죽음을 직접적으로 연구한 것은 아니나, 죽음관이나 노년기의 소망에 관한 연구에서도 좋은 죽음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었다.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이용한 [33]은 노인의 10번째 소망으로 죽음에 대해 ‘행복한 끝맺음’이라는 중심 의미를 찾아내고 이 중심 의미는 편안한 죽음, 적절한 시기의 죽음, 사후처리, 죽음에 대한 완벽한 준비의 4가지 주제로 구성됨을 확인하였다. 양적연구를 한 [26]의 연구에서는 노환으로 사망하는 것, 70세 이후에 사망하는 것, 집에서 임종을 맞는 것, 1개월 미만의 임종기간, 임종기 동안 가족과 함께 하는 것, 임종기 동안의 독립성, 죽음에 대한 인지, 유언 남기기, 임종기 동안의 자율성, 임종기 동안의 의료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 통증 없는 것, 무의미한 생명 연장술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질적연구방법을 적용한 논문이나 양적연구방법을 적용한 논문 모두에서 노인이 인식하는 좋은 죽음은 명을 다하는 죽음, 고통 없는 죽음, 가족을 마지막까지도 배려하는 죽음 등이 공통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노인이 인식하는 좋은 죽음과는 다소 다르다. [34]는 문화기술지방법으로 성인이 인지하는 노인의 죽음관을 파악한 결과, 호상의 조건을 갖춘 죽음을 좋은 죽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비정상적인 죽음은 부정한 죽음으로 간주하였다. 초자연적 현세 발복적인 사고가 강하게 나타났고, 조상신으로 대접받으며 자손과 함께 영원히 존속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Colazzi의 분석방법을 이용한 [18]의 연구에서는 좋은 죽음의 범주로는 평등한 죽음, 준비하는 죽음, 기대하는 죽음, 관계 속의 죽음, 거부하고 싶은 죽음 등으로 나타났다. 내용분석을 적용한 [22]의 연구에서는 품위 있는 죽음의 특성으로는 기계적 장치에 매달리지 않는 죽음, 자연에 순응하는 죽음, 가족과 함께하는 죽음, 의미 있는 죽음, 자기 파괴적이지 아닌 죽음 그리고 의료전문가의 공감적 도움을 받는 죽음으로 나타났다. 또한 [23]은 의사, 간호사를 대상으로 Schwartz 등(2003)이 개발한 좋은 죽음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좋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평화롭게 죽는 것 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인은 좋은 죽음을 죽음에 있어서의 평등성이나 품위, 평화, 순응적이고 자연스러움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고통 없음과 가족을 배려하는 노인의 좋은 죽음과는 다소 다르다.

마지막으로 좋은 죽음과 관련된 논문의 내용을 분석한 [19]는 good death, well dying, 좋은 죽음, 복 있는 죽음, 행복한 죽음 등의 검색어로 논문관련 사이트를 이용하여 28편의 논문을 추출, 개념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좋은 죽음은 존엄성, 자기조절, 편안함, 최적의 관계, 적절성, 죽음준비, 부담감소 등 7개의 범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는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연구대상자의 문제나 연구대상자의 특성 등의 문제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제한점을 안고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지역 및 충청지역의 복지관, 노

인복지(회)관, 노인종합복지관, 보건소 등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좋은 죽음에 대한 본질과 의미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자 노인과의 면담을 실시하였고, 면담 내용을 토대로 주제묶음을 실시한 내용분석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절차

좋은 죽음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연구자로부터 본 연구의 목적과 의도를 듣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로서 65세 이상 노인 3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2월 까지 5개월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질적연구방법론을 수강한 본 연구자와 대학원생이 직접 인터뷰를 하였다.

질적 연구의 기본 자료수집 방법인 일대일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였고, 자료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개방형의 반 구조 면접지침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좋은 죽음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에 조사원들이 기술하였으며, 인터뷰를 담당할 조사원들이 참여자의 허락을 구한 뒤 녹음을 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였다. 또한 노인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면접장소로는 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노인종합복지관, 보건소 등의 거실이나 방에서 1회 한차례의 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고자 가능한 한 개방적이고 비구조적인 질문형태를 유지하였으며 참여자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 하도록 격려했다. 자료는 35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였으나, 그 중 본 연구의 분석에 적합하지 아니한 9명의 자료는 제외한 341명의 인터뷰 자료를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연구질문

본 연구는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좋은 죽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개방형 1개 문항을 가지고 인터뷰 하였으며, 또한 노인의 성별, 연령, 학력, 종교, 경제 수준, 건강 수준, 배우자 유무, 거주 지역 등에 대한 설문조사도 병행하였다.

4. 연구 참여자의 특징

표 1. 연구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구분	명	%
성별 (n=341)	남	145	42.5
	여	196	57.5
	계	341	100.0
연령 (n=341)	70세 미만	80	23.5
	70-74세	110	32.3
	75-79세	92	27.0
	80세 이상	59	17.3
	합계	341	100.0
학력 (n=341)	초졸	150	44.0
	중졸	72	21.1
	고졸	43	12.6
	대졸 이상	24	7.0
	무학	52	15.2
합계	341	100.0	
종교 (n=341)	불교	80	23.5
	천주교	55	16.1
	기독교	95	27.9
	무교	111	32.6
	합계	341	100.0
경제수준 (n=341)	하	114	33.4
	중	193	56.6
	상	34	10.0
	합계	341	100.0
건강수준 (n=341)	하	81	23.8
	중	177	51.9
	상	83	24.3
	합계	341	100.0
배우자 (n=341)	유	200	58.7
	무	141	41.3
	합계	341	100.0
주거지역 (n=341)	도시	200	58.7
	농촌	141	41.3
	합계	341	100.0

연구 대상노인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341명의 노인 중에서 남자노인이 42.5%, 여자노인이 57.5%로 여자노인이 많았고, 연령별로는 70~74세가 32.3%로 가장 많았고, 75~79세가 27.0%, 70세 미만이 23.5%, 80세 이상이 17.3% 순이었다. 학력에 따라서는 ‘초’졸이 44.0%로 가장 많았고, ‘중’졸이 21.1%, 무학이 15.2%, ‘고’졸이 12.6%, ‘대’졸이상이 7.0% 순이었으며, 종교는 무교가 32.6%로 가장 많았으며, 개신교 27.9%, 불교 23.5%, 천주교 16.1% 순이었다. 경제수준은 ‘중’이 56.6%로 가장 많았고, ‘하’가 33.4%, ‘상’이 10.0% 순이었

다. 건강수준은 ‘중’이 51.9%로 가장 많았고, ‘상’이 24.3%, ‘하’가 23.8%로 나타났으며, 배우자 유무에서는 배우자 있는 경우가 58.7%로 많았으며, 없는 경우는 41.3%였다. 노인의 거주지는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58.7%로 다소 많았으며,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은 41.3%였다[표 1].

5. 연구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내용분석방법은 비구조화된 탐색 자료가 함축하고 있는 메시지의 특성을 특정한 분석준거나 관점에 근거하여 해석함으로써 자료의 특성을 체계적,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방법이다[35].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방형 질문에 대한 설문지에 기술된 내용과 녹음내용 중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한 후 좋은 죽음에 대한 원자료를 확보하였고, 연구자는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다음 단계로 대상자의 진술내용을 중심으로 좋은 죽음에 의미를 구성하고, 하위범주, 범주화를 하였다.

분석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Guba와 Lincoln[37]이 제시한 질적연구의 4가지 평가기준인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에 기반하여 연구의 엄격성을 따르고자 하였다.

첫째, 사실적 가치(True Value)는 양적 연구의 내적 타당도인 신뢰성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연구의 발견이 얼마나 실제의 정확성을 측정하였는가를 말하는 것으로써, 현상을 얼마나 생생하고 충실하게 서술하였는가를 말한다. 연구 참여자에 의하여 또는 독자들로 하여금 경험에 대한 서술과 해석이 얼마나 자신의 경험으로 믿을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의 사실적 가치를 높이고자 좋은 죽음과 관련된 매체와 연구물들, 출판된 책 등과 죽음학 전공 교수의 검토를 받고, 질적연구의 경험이 있는 연구자와 죽음주제와 관련이 있는 연구자들의 검토를 받아 반영함으로써 신뢰성을 증진시켰다.

둘째, 적용성(Applicability)은 적합성이라는 개념으로 양적연구에서 외적 타당도에 해당한다. 외적 타당도는 연구결과를 또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고려하는 것으로 연구결과의 일반성, 대표성을 말한다. 연구참

여자가 실세계에 대한경험을 충분히 묘사할 수 있고 제시할 수 있는가이며 연구결과는 연구가 이루어진 상황 밖에서도 적합한지 그리고 독자들이 연구결과를 읽고 자신들의 고유한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미있고 적용력이 있는 것으로 적합성을 평가한다. 연구자의 적용성을 고려하여 연구자는 대상자가 경험을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고 인지에 문제가 없으며 의사소통이 정확한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일관성(Consistency)평가는 양적연구에서는 신뢰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료의 관찰과 분석이 일관성있게 이루어졌는가를 고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질적연구는 감각을 통해 검증할수 없는 현실속의 사람들의 경험과 환경의 독특성을 강조하므로 공통적인 반복이 아니라 경험의 다양성을 강조한다. 같은 방법을 활용한 연구자가 같은 결과를 얻을수 있을때 충족되며 연구자의 자료, 견해, 주어진 상황에 대해 반대론적 결론을 내리지 않는 비교되는 결론을 내려도 이 기준은 충족된다고 하였다. 그들은 질적연구의 일관성과 관련된 엄밀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감사성(Audirability)을 제안하였다. 이는 연구자에 의해 사용된 ‘분명한 발자취(decision trail)’ 다른 연구자가 따라갈 수 있을 때를 말하며 다른 연구자도 연구자의 자료, 시각, 상황에 따라 비슷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때 일관성이 높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자료에서 발견된 주제와 범주에 대한 분석적 사고를 위해 지속적 비교방법을 통해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주제목록이 이루어지고 지도교수와 질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2명의 선생님, 그리고 질적연구를 하는 대학원생과 함께 2번의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는 워크숍에서는 본 연구자가 분석한 주제 목록에 대한 토의를 하였고, 주제목록의 주제가 좋은 죽음에 관한 학문적 혹은 일상적 용어로 적절한지에 관해서 3시간여에 걸쳐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워크숍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진술한 원 진술이 하위범주에 도출한 주제의 의미와 같은지를 확인하는 작업과 범주별 주제가 원 진술과 맞게 도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질적 연구를 전공한 교수님과 4번의 개별적 만남으로 연구 참여자의 원진술의 의미와, 도출한 범주의 의미, 주제목록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 깊은 토론을 하였다.

넷째, 중립성(Neutrality)은 양적연구의 객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구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모든 편견으로부터 해방을 의미 한다. 따라서 연구대상자에 대한 연구자의 가정과 선이해를 검토해 보는 것은 연구 실행 전에 실행해야할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이다. 본연구자는 대상이 많고 인지능력이 정확하고 연구에 동참할 의사가 있는 65세 이상인 노인이면 누구든 본 연구의 참여자가 되었기 때문에 중립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6.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사항

본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면담 시작 전에 응답의 자율성에 대하여 안내하였고,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을 설명하여 참여자의 이해와 동의를 얻었다. 면담내용에 있어서는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은 구두로 확인을 받았다. 면담 후에는 연구제공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익명을 사용하였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다만 연구에 사용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의 내용분석의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들이 인식하는 좋은 죽음은 16개의 하위 범주가 도출 되었으며, 이는 다시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죽음’, ‘천수를 누리는 죽음’, ‘내 집에서 맞이하는 죽음’, ‘편안한 모습으로의 죽음’, ‘준비된 죽음’, ‘원하는 삶을 누리다 가는 죽음’의 6개의 범주로 묶여졌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은 6개의 범주 중에서 ‘편안한 모습으로의 죽음’이 61.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죽음’을 좋은 죽음으로 여기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15.5%로 2 순위였고, ‘원하는 삶을 누리다가 가는 죽음’이 13.8%로 3순위였다. 따라서 노인은 편안한 모습으로 죽는 것을 좋은 죽음으로 여기는 노인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좋은 죽음

범 주	하위범주	빈도(%)	내 용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죽음 53 (15.5)	배우자와 비슷한 시기에 함께사는 죽음	8 (2.3)	배우자와 뜻 깊은 삶 · 행복한 삶을 살다가 비슷한 시기에 가는 것 배우자와 함께 여생을 보내다 배우자 옆에서 잠자듯이 맞이하는 죽음 부부가 한날 한시 잠자다가 죽는 것
	어느 누구에게 폐끼치지 않는 죽음	40 (11.7)	아무에게도 피해주지 않고 편안히 가는 것 가족에게 피해주지 않고 죽는 것 자식 배우자 고생 안 시키고 죽는 것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죽음	5 (1.5)	좋은 일 많이 하다가 누가 알아주는 편안한 죽음 언제나 주위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배운 삶을 살았다고 기억되는 삶을 살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
천수를 누리는 죽음 20(5.8)	적당한 수명을 누리는 죽음	8 (2.3)	적당한 나이에 건강하게 맞이하는 죽음 100세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 80대 후반에서 90대 초반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
	명을 다하는 죽음	12 (3.5)	명대로 살다가 죽는 것 손리대로 가는 것 천명이 올 때까지 살다가 죽는 것
내집에서 맞이하는 죽음 4(1.2)	내 집에서 맞이하는 죽음	4 (1.2)	병원 가지 않고 집에서 자식들 앞에서 아프지 말고 죽는 것 아프지 않고 집에서 맞는 죽음 아랫목에서 편안하게 죽는 죽음
편안한 모습으로의 죽음 211 (61.9)	평온한 죽음	24 (7.0)	고생 안하고 편안히 살다 죽는 것 아무런 걱정 없이 평온한 상태에서 맞이하는 죽음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맞이하는 죽음 편안히 살다 가는 것
	잠자는 듯한 죽음	60 (17.6)	저녁 잘 먹고 잠자다가 죽는 것 자다가 자는 듯이 죽는 것 저녁밥 잘 먹고 아침에 눈 안 뜨는 것
	아프지 않고 맞이하는 죽음	94 (27.6)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가 죽는 것 고통 없이 죽는 것 병으로 아프지 않는 것
	임종과정이 길지 않는 죽음	33(9.7)	3~4일만 아프고 죽는 것 나 자신이 느끼기도 전에 가버리는 것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죽는 것
준비된 죽음 6(1.8)	준비된 죽음	6 (1.8)	주변정리하고 깔끔하게 하고 죽는 것 죽음을 준비하고 이 세상 삶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 살을 정리하고 맞이하는 죽음
원하는 삶을 누리다 가는 죽음 47 (13.8)	삶의 최선을 다하고 맞이하는 죽음	18 (5.3)	후회 없이 열심히 삶을 다하고 가는 것 가는 날까지 열심히 살다가 죽는 것 최선을 다하다가 편안하게 가는 것
	삶을 즐기고 맞이하는 죽음	12 (3.5)	여행도 가고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다가 편안하게 가는 것 눈감는 날까지 즐기다가 눈 감는 것 건강하고 여가를 즐기다 맞이하는 죽음
	배우는 삶을 살고 가는 죽음	6 (1.8)	봉사하는 죽음 선행을 행하고 죽는 죽음 자기의 역량으로 사회나 개인에게 배우는 죽음
자손이 잘되는 것보고 가는 죽음	신앙속에서의 죽음	8 (2.3)	성당에서 죽는 것 하나님이 부르는 날 소리 없이 떠나가는 것 극락 환생 하는 것
	자손이 잘되는 것보고 가는 죽음	3 (.9)	자식이 잘되는 것 보고 죽는 것 손주 커가는 것 보면서 아프지 않고 죽는 것

1. 주변사람을 배려하는 죽음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죽음’의 범주에는 ‘배우자와 비슷한 시기에 함께하는 죽음’, ‘어느 누구에게도 꽤 끼치지 않는 죽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죽음’의 하위범주가 묶였다.

우리문화에서는 ‘나’보다 ‘우리’라는 관계가 중요하다. 서구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반면, 우리문화는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데 이러한 집합주의 혹은 집단주의 문화의 대표적인 실례로 우리나라의 가족주의적 가치관을 들 수 있다. 가족주의 가치관은 가족을 가장 기본적인 사회단위로 보고 이 집단의 이익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는 가치 지향이며[38], 집과 가족을 중심으로 우선성을 부여하는 가족 중심적 집합주의의 규범원리이다[39]. 이러한 가족중심의 제도에서 혈통위주의 ‘우리’라는 집단이 만들어졌다[40].

이러한 집합주의적인 ‘우리’ 문화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현재의 노인들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주변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죽는 순간 부부가 함께 하고자 하였으며, 이로 인해 자식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꽤 끼치고 싶어 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됨으로서 자신이 속한 집단에 여전히 소속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우리나라 노인들이 죽는 순간까지도 가족과 타인과 관계를 중시하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먼저 [18]의 연구에서 나타난 ‘관계 속의 죽음’과 유사한데, [18]은 이러한 결과를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기를 바라고 타인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하며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즉, 죽음 앞에서도 얽힌 관계들을 정리하고 화해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좋은 죽음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27]의 연구에서도 노인들이 자신의 삶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가족과 관련된 기억들이 많은 것도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41][42][26]도 좋은 죽음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과의 좋은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1.1 배우자와 비슷한 시기에 함께하는 죽음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죽음’의 범주에는 ‘배우자와 비슷한 시기에 함께하는 죽음’, ‘어느 누구에게도 꽤 끼치지 않는 죽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죽음’의 하위범주가 묶였다.

‘배우자와 비슷한 시기에 함께하는 죽음’은 삶과 죽음을 부부가 함께 하고자 하는 노년기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와 맞물려 그 중요성이 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노인 단독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한 배우자가 먼저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 남아 있는 배우자에 대한 안타까움, 자식의 부양부담에 대한 염려 등이 자녀에게 부양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부부가 함께하는 죽음에 투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부부가 함께 하는 죽음을 좋은 죽음이라고 여기는 것은 다음 몇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노년기 사별자는 중년기 사별자와는 달리 역할수행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하는 죽음을 좋은 죽음이라고 여길 수 있다. 중년기 사별의 경우는 살아 있는 배우자는 자녀를 길러야 하고, 결혼을 시켜야 하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43] 등 남아 있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있어서 부부가 함께 하는 죽음을 생각하기 어려우나, 노년기의 경우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죽음과 남은 사람의 삶은 자녀에게 부양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부부가 함께 하는 죽음’에서 볼 수 있어 노년기 죽음의 독특한 범주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사별자의 슬픔과 관련해서 해석이 가능하다. 배우자와의 사별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중의 하나이며[44][45], 분노, 죄책감, 쇼크, 부정, 우울, 초조감과 같은 정서적 부작용이 나타난다[46][47]. 특히 자녀를 키워야하는 의무감이 적은 노년기의 경우 배우자 사별로 인한 슬픔이 더 크다는 것이다. 즉, 상실감, 절망감, 외로움, 경제적 문제, 역할 수행문제, 대인관계문제 등의 여러 어려움을 경험[7][48] 하게 되는 것은 중년기나 노년기의 사별 모두 해당하나, 노년기에는 가장 친밀한 존재인 남편이나 아내를 잃음으로써 친밀한 관계 해체로부터 오는 상실감, 절망감, 외로움 등의 심리적인 고통이 상당하다[48-50]는 것이다. 노년의 부부에

게 배우자는 자신이 나이 들므로 인해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삶을 위해 필요한 존재이다. 또한 노년에 예상할 수 밖에 없는 사별에 있어 서로 측은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으며,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배우자의 삶이 측은해지지 않도록 자신이 남겨지기를 원하고 있었다[51]. 따라서 부부가 한낱한시에 함께 죽음으로서 이러한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하는 죽음을 좋은 죽음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해석 된다.

1.2 어느 누구에게 폐 끼치지 않는 죽음

‘어느 누구에게 폐 끼치지 않는 죽음’은 자식들 피해 주지 않고 죽는 것,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죽는 것, 가족에게 피해주지 않고 죽는 것,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죽음, 자식들 고통 없이 죽는 것 등으로 묶여졌다.

‘어느 누구에게도 폐 끼치지 않는 죽음’은 자식을 포함한 주변사람에 대한 배려로, 살아도 죽어도 자식 위해 피해주지 않도록 죽는 것이라는 말 속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을 배려하고자 하는 노부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27]의 연구에서 나타난 노인들이 생각하는 호상의 조건에서 ‘자손에게 폐 끼치지 않고 죽는 것’, [25]의 연구에서 나타난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는 죽음’, [19]의 연구에서의 ‘부담 감소’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노인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자손이나 남아있는 가족에게 신체적, 재정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고, 주변사람들에게 폐 끼치지 않으며, 남에게 짐이 되지 않기[19]를 바라는 노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매우 동양적인 것으로 개인주의가 강한 서양의 사고와는 달리 자신의 행복보다는 자신의 혈육인 자손에 대한 배려의 마음으로 해석된다[27].

1.3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죽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죽음’은 다른 사람들이 슬퍼 해주는 죽음, 남들에게 뜻 깊은 인물로 생각되는 죽음, 좋은 일 많이 하다가 누가 알아주는 죽음, 남한테 욕먹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 죽어서 안됐다는 말 듣는 것, 남에게 폐 끼치지 않고 언제나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베풀 삶을 살았다고 기억 되는 죽음 등으로 묶여졌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죽음’은 부부가 함께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폐 끼치지 않고 죽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왕이면 죽은 뒤에도 남이 슬퍼해주고, 그 사람이 죽어서 안타까운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것이다. 이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 죽은 뒤까지도 자신이 속한 집단 구성원들의 기억에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것으로 우리의 강한 집단주의 문화를 볼 수 있는 결과이다.

2. 천수를 누리는 죽음

‘천수를 누리는 죽음’의 범주에는 ‘적당한 수명을 누리는 죽음’, ‘명을 다하는 죽음’의 하위범주가 묶였다.

우리나라 노인은 70세 후반에서 80세 중반이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천수를 다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죽음의 때는 제 수명보다 일찍 죽는 것도 좋은 죽음이 아니며, 제 수명보다 길게 사는 것도 좋은 죽음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25].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오래 사는 기준을 80으로 보았고, 80이 지나면 죽을 연령이었다고 했는데 이후에 죽는 것을 호상이라고 하고, 너무 젊어서 죽으면 참상(慘喪)이라고 하였다[51].

이처럼 천수라는 의미는 적절한 나이에, 자신이 타고난 명을 다하는 죽음, 즉 호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적당한 수명을 누리는 죽음’과 ‘명을 다한 죽음’ 모두 ‘천수’를 다하는 죽음에 속하지만 ‘적당한 수명을 누리는 죽음’은 몇 살까지 살다가 죽는 것이 좋은 죽음이라는 즉, 몇 살까지의 의미가 강하게 포함되어 있는 범주이고, ‘명을 다하는 죽음’은 자신이 태어날 때 타고난 수명을 다하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범주이다.

2.1 적당한 수명을 누리는 죽음

‘적당한 수명을 누리는 죽음’은 적당한 나이에 건강하게 맞이하는 죽음, 100세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 80대 후반에서 90대 초반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는 것 등으로 묶여졌다.

‘적당한 수명을 누리는 죽음’은 건강할 때 열심히 살다가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좋은

죽음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이는 [27]이 보고한 ‘적절한 나이에 죽는 것’ 즉 70세 또는 80세 이상 살다가 죽는 것을 좋은 죽음이라고 본 것과 같으며, [26]의 연구에서도 70세를 넘어서 죽는 것을 좋은 죽음이라고 하였고, [51]의 연구에서 나타난 ‘천수를 다하고 감’과도 같은데, 그의 연구에서 ‘천수를 다하고 감’은 살만큼 살되 팔십을 넘어가는 것을 호상(好喪)이라고 인식하는 것이었다. 또한 [42]는 ‘나쁜 죽음’의 요소로 요절을 제시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즉, 지나치게 오래 사는 것은 자손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지만[52], 또한 지나치게 이른 죽음도 요절이라고 하여 터부시하고 있어서 좋은 죽음에서 수명의 적절성이 중요한 한 측면으로 나타났다.

2.2 명을 다하는 죽음

‘명을 다하는 죽음’은 그냥 사는 날 까지 살다가 죽는 것, 명대로 살다가 죽는 것, 갈 때 되면 편안하게 가는 것, 때가 되면 가는 것, 순리대로 가는 것, 천명이 올 때까지 살다가 죽는 것, 자연사 등으로 묶여졌다.

‘명을 다하는 죽음’은 제 수명보다 일찍 죽는 것과 제 수명보다 길게 사는 것을 좋은 죽음으로 보지 않고, 자신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자신의 명을 다한 죽음을 좋은 죽음으로 인식 하는 것이다.

[25]는 제 수명보다 너무 일찍 죽는 것을 복이 없다고 보고 제 수명보다 길게 사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하였으며, [27]도 자기 명대로 오래 살다가 죽는 것, 생명이 다할 때까지 살다가 자연사 하는 것을 좋은 죽음으로 보았다. [19]의 연구에서 나타난 적절한 수명도 적절한 나이에, 살만큼 살다가 노환으로 자연사하는 것을 좋은 죽음으로 보았고, [22]도 자연에 순응하는 죽음을 좋은 죽음이라 한 연구들과 같은 맥락으로 자신이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명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내 집에서 맞이하는 죽음

‘내 집에서 맞이하는 죽음’의 범주는 ‘내 집에서 맞이하는 죽음’의 하위범주로만 묶였다.

3.1 내 집에서 맞이하는 죽음

‘내 집에서 맞이하는 죽음’은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자식들 앞에서 죽는 것, 아프지 않고 집에서 맞이하는 죽음, 아랫목에서 편하게 죽는 죽음, 양로원 가지 않고 집에서 죽는 것 등으로 묶여졌다.

좋은 죽음의 장소로 ‘집’을 선호하는 것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즉, [27]은 35명의 노인 중 22명이 집에서 임종을 맞는 것을 좋은 죽음이라고 응답하였고, [53]도 의사들이 임종장소로 ‘환자의 집’을 가장 많이 권한다고 하였다. [26]의 연구에서도 사망자의 약 76.6%가 집에서 임종을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기 집에서 깨끗이 죽음을 맞는 고종명(考終命)을 좋은 죽음이라고 보고 있었다.

‘집’은 물리적 환경으로서의 주택의 의미와 심리적 장소로서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집은 하나의 사물이 고 환경이지만 주거는 사람과 그들이 속해 있는 환경 사이의 일종의 관계로서, 주거란 거주자와 거주하는 장소 간에 맺어진 정서적인 면에 바탕을 두고 있다[52]. 따라서 ‘집’에는 친정서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의미가 노년기 좋은 죽음에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객사(客死)를 나쁜 죽음으로 보고 있는데, 객사를 나쁜 죽음으로 인식하는 밑바탕에서는 우리의 무속신앙과 관련 된다. 우리의 무속신앙에는 가택신(假宅神)인 성주신이 있는데, 성주신은 그 집안의 생사화복(生死禍福)을 관장한다. 태어나는 것도, 잘 먹고 잘사는 것도, 혼인을 하는 일도 성주신의 소관이며, 일생을 마치는 것도 성주신의 소관이다. 그런데 가족이 정작 죽을 때 집을 떠나 객지에서 죽으면 성주신은 배운 망덕한 놈이라고 노하여서 시신을 집안의 성주신 앞으로 들이지 못하게 한다. 그동안 신세를 진 성주신과 정겨운 이별을 하지 못한 죄를 사자(死者)가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객지 주검을 집안으로 들이지 못하는 풍습이 있다[55]. 또한 거리에서 죽은 객사영산을 무속에서는 잡귀로 볼[56][57]만큼 우리문화는 ‘집’에서의 죽음을 좋은 죽음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현대의술의 진보와 장례문화의 상업화와 핵가족화에 따라 가정에서의 장례가 줄어들고 있고 대부분 병원이나 전문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3]에 의하면

‘가능하면 집에서 사망하는 것이다’를 좋은 죽음이라고 인식하는 수준이 5점 만점에 의사는 평균 2.27이었고, 간호사는 평균 2.47점으로 중앙값 이하이다. 또한 [58]의 연구에서도 여성 노인이 임종장소로 집을 원하는 비율이 32.5%, 병원을 원하는 경우가 61.9%로 병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화에 따른 아파트문화와 의료기술의 발달, 죽음의 상업화에 따라 죽음을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59] 있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참여자들은 집에서의 죽음을 좋은 죽음으로 여기고 있으나 핵가족이 보편적 가족으로 자리잡은 현대의 한국에서는 자신의 집에서 죽음을 맞이 어려운 실정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

4. 편안한 모습으로의 죽음

‘편안한 모습으로의 죽음’의 범주는 ‘평온한 죽음’, ‘잠자는 듯한 죽음’, ‘아프지 않는 죽음’, ‘임종과정이 길지 않는 죽음’의 하위범주로 묶였다.

‘편안함’은 단순히 신체적인 측면에서의 편안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신체적으로 편안한 상태가 유지되고, 심리적으로는 평안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본 범주에서 편안한 모습으로의 죽음은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편안함을 모두 포괄하였다.

4.1 평온한 죽음

‘평온한 죽음’은 마음고생 하지 않고 모든 것 신경 안 쓰고 편안하게 가는 것, 고생 안하고 편안히 살다 죽는 것,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비우고 죽는 것, 아무런 걱정 없이 평온한 상태에서 맞이하는 죽음, 고요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맞이하는 죽음,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맞이하는 죽음, 편안히 살다 가는 것 등으로 묶여졌다.

‘평온한 죽음’은 정신적인 측면에서 평안한, 혹은 평온한 모습의 죽음을 의미한다. 이는 [19]의 연구에서 심리적으로 두려움이나 정신적으로 고통 없이 평화롭게 죽는 죽음과 유사하다.

4.2 잠자는 듯한 죽음

‘잠자는 듯한 죽음’은 편안하게 죽는 것, 편안하게 자면

서 나도 모르게 가는 것이 최고의 죽음, 저녁 잘 먹고 잠 자다가 죽는 것, 자다가 자는 듯이 죽는 것, 저녁에 기도 하고 잠잘 때 고요히 가는 것, 자면서 가는 것, 저녁밥 잘 먹고 아침에 눈 안 뜨는 것, 자면서 어느 날 갑자기 가는 것 등으로 묶여졌다.

‘잠자는 듯한 죽음’은 잠을 자다가 죽는 죽음을 좋은 죽음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27]의 연구에서 ‘저녁 먹고 자다가 또는 자는 듯이 죽는 게 원이에요.’ 혹은 ‘저녁 잘 먹고 내일 아침 문 열어 보면, 아이고 우리 어머니 어제 저녁 잠수고 돌아가셨구나 이러는 걸 바라는 거여.’ 등으로 나타난 ‘수면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4.3 아프지 않는 죽음

‘아프지 않는 죽음’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 앓지 말고 죽는 것, 병들지 않고 죽는 것, 치매에 걸리기 전에 죽는 것, 앓지 않고 죽는 것, 병 없이 죽는 것 등으로 묶여졌다.

‘아프지 않는 죽음’은 건강함과 신체적 통증 및 물리적 통증이 없는 것을 좋은 죽음으로 보는 것이다. 건강한 복은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 중에 하나로 ‘강녕(康寧)’과 관련된다[60].

이러한 결과는 [51]의 여성 노인이 인식하는 ‘건강하게 살다 감’과 같은 맥락으로 ‘건강하게 살다 감’은 몸쓸 병에 안 걸림, 내 몸 건사함을 의미했다. 또한, [27]의 연구에서 나타난 무통사나 무병사와 유사하다. 무통사는 대부분의 노인들은 죽음에 직면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죽음과 관련된 고통 없이 죽는 것을 바라고 있었으며, 무병사는 노인들은 병으로 오래 앓는 것을 두려워하였으며, 큰 중병 없이 살다가 죽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

4.4 임종과정이 길지 않는 죽음

‘임종과정이 길지 않는 죽음’은 3~4일만 아프고 죽는 것, 이틀만 누웠다가 죽는 것, 하루만 아프고 죽는 것, 조금만 앓고 죽는 것, 조금 아프다가 죽는 것, 조용히 나도 모르게 죽음을 맞는 것, 조용히 가는 것, 슬그머니 가는 것, 나 자신이 느끼기 전에 가는 것, 살짝 숨이 거뒀지는 것 등으로 묶여졌다.

‘임종과정이 길지 않은 죽음’은 [23]의 ‘임종과정이 길지 않는 것’이나, [26]의 연구에서의 임종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좋은 죽음이라고 여기는 것과 유사하며, [27]의 연구에서 ‘좋은 죽음’의 요소로 보고한 ‘병으로 오래 앓지 않고’ 와 유사하다. 또한 [42]의 연구에서도 ‘빨리 죽는 것’을 좋은 죽음의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임종기간이 길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율성을 갖고 싶다는 의지로 해석이 된다. 즉, [19]는 신체적으로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고 임종까지 독립적인 생활을 하며,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삶을 통솔하며 죽을 때 까지 명료한 의식을 가지는 것을 좋은 죽음이라고 하였다.

5. 준비된 죽음

‘준비된 죽음’은 할 일 다 해 놓고 정리 다하고 자식들에게 물려 줄 것 물려주고 정리하고 편히 가는 것, 마음을 정리 하고 주변 정리 깔끔하게 하고 죽는 것, 죽음을 준비하고 이 세상 삶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 모든 일을 정리하고 맞이하는 죽음 등 자신의 마지막 삶을 정리하고 맞이하는 죽음 등으로 묶여졌다.

‘준비된 죽음’은 자신의 마지막 삶을 정리하고 맞이하는 죽음을 좋은 죽음이라 여기는 것이다.

이는 죽음준비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먼저, [25]의 연구에서 ‘준비된 죽음’과 같으며, 죽기 전에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61]의 준비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함의 주제 모음을 살펴보면, ‘젊었을 때부터 준비함’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며 준비함’이라는 2개의 주제를 도출했는데, 그의 주장처럼 ‘품위 있는 죽음’, ‘준비된 죽음’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젊었을 때부터 꾸준한 준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18]도 본인이든 타인에 의해서든 죽음을 준비할 시간과 과정이 있는 것이 좋은 죽음이라 하였으며, [19]는 과업을 완성하고, 하고 싶은 일이나 끝마치지 못한 일을 완수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장례절차나 재정적 정리를 하고, 부모 노릇 다하고 죽는 것을 ‘죽음준비’라 하였는데, 이 역시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놓여있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인간적인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노년기의 바람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과제라 할 수 있다. 죽음에 대한 준비는 잘 죽는 것과 연관 되어 있으며 잘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잘 살았는가, 또는 얼마나 준비를 하였는가로 말 할 수 있다[62]. 그러므로 죽음 준비는 태어나면서 죽음을 향해 가는 것과 같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6. 원하는 삶을 누리다 가는 죽음.

원하는 삶을 누리다 가는 죽음은 ‘삶의 최선을 다하고 맞이하는 죽음’, ‘삶을 즐기고 맞이하는 죽음’, ‘배푸는 삶을 살고 가는 죽음’, ‘신앙 속에서의 죽음’, ‘자손이 잘 되는 것 보고 가는 죽음’으로 묶였다.

즉 남아 있는 삶에 최선을 다하고, 여유로운 여가를 즐기며, 자신의 것을 남에게 베풀며, 신앙이 있는 노인의 경우 신앙속에서 삶을 살다가 신앙을 따라 가며, 마지막까지 내 자손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죽는 것을 현재의 노인이 원하고 바라는 삶으로 볼 수 있다.

6.1 삶의 최선을 다하고 맞이하는 죽음

‘삶의 최선을 다하고 맞이하는 죽음’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고 죽는 것, 해 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고 죽는 것, 후회 없이 열심히 삶을 다하고 죽는 것, 이루고 싶은 일들을 다 이루고 맞이하는 죽음,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고 맞이하는 죽음, 가는 날 까지 열심히 살다가 죽는 것, 최선을 다하다가 죽는 것 등으로 묶여졌다.

‘삶의 최선을 다하고 맞이하는 죽음’은 가는 날 까지 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죽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25]의 연구에서 ‘부모노릇 다하고 맞는 죽음’이나, [63]의 연구에서 나타난 ‘계획한 일들을 모두 이룬 뒤에 죽는 죽음’과 유사하다. 그런데 [25]와 [63]의 연구에서는 죽기 전의 과업 완성 측면이 강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삶의 최선을 다하고 맞이하는 죽음’은 살아 있는 동안 삶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죽음의 순간을 의미하기 보다는 삶에서의 목적, 해야 할 일, 후회 없는 삶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차이가 있다.

6.2 삶을 즐기고 맞이하는 죽음

‘삶을 즐기고 맞이하는 죽음’은 여가 생활을 즐기다가 죽는 죽음을 좋은 죽음이라 여기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찾아보지 못한 범주이다.

현재의 노인들이 젊은 시절 혹은 중년기에 사회의 부양자로서, 가족의 부양자로서 삶을 사느라 누리지 못했던 여유로운 삶을 죽기 전에 누리보고자 하는 욕구를 볼 수 있다. 현재의 노인들은 주로 일제강점기 말에서 해방 즈음에 태어나, 유소년기에 6.25를 경험한 세대이다. 이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 전쟁과 절대적 빈곤의 경험을 공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20, 30대가 되었을 무렵에는 1960년대를 시작으로 70, 80년대에 이르기까지 급격한 산업화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우리나라의 산업화의 역군으로서 오로지 직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나 가족보다 직장을 앞세우며 식민지 생활의 여파와 전쟁의 빈곤에서 벗어나고자 ‘일벌레’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산업전선에서 맹활약을 하였다. 젊은 시절 ‘산업전사’로 가정을 희생시키면서 일에 매진했고 최근 들어 IMF를 포함하는 사회경제적 사건으로 인하여,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은 세대로서[64], 이들은 인생에서 여유를 가져볼 시간이 없었다.

이처럼 지금의 노인들은 어려운 시절 어렵게 자식교육에 부모공경에 본인이 하고 싶은 것 못해 보고 마음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즐기며 살아 보지 못한 것이 한으로 남아있을 것이며, 따라서 죽기 전에 남은 생을 즐겁게 즐기고 살다가 가고픈 소망을 보여주고 있다.

6.3 베푸는 삶을 살고 가는 죽음

‘베푸는 삶을 살고 가는 죽음’에서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삶과 죽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노인의 자아통합적인 태도를 볼 수 있다.

[51]의 ‘덕(德)을 쌓고 감’, [22]의 ‘의미 있는 죽음’과도 유사한데, 의미 있는 죽음은 주변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나눔을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는 동안 남몰래 온정을 베풀고 덕을 쌓으면, 후손이 복을 받게 되고, 후손들은 그 복을 선조의 음덕으로 알고 조상을 잘 대접하는 예(禮)로서 보답하는 것이 우리의 죽음문화이며[51], 이

러한 문화가 본 연구의 ‘베푸는 삶을 살고 가는 죽음’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지만 여전히 기부에 대해서는 인식하다. 아직도 할머니들이 기부문화의 주인공인 나라라고 한다. 요즘도 김밥 할머니, 떡장수 할머니, 샴바느질 할머니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아무 조건 없이’ 사회에 쾌척하는 모습에서 베푸는 삶을 살다 가는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다.

6.4 신앙 속에서의 죽음

‘신앙 속에서의 죽음’은 [21]의 연구에서 신앙에 의지하여 준비된 초연한 죽음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친밀감속에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죽음을 소망으로 승화시킨다는 [65]연구에서도 볼 수 있다.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4가지 성사(세례, 성체, 병자, 고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며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믿는다[66]. 즉, 본 연구의 노인들이 말하는 부활죽음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는 날 소리 없이 떠나며, 예수를 혹은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가는 죽음을 좋은 죽음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불교에서는 죽음을 회피할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현재의 삶에서의 업이 다음 생으로 이어지므로, 현재의 삶이 어떠한가는 다음 생을 위한 중요한 것이며 [67], 이러한 불교적 교리를 따르는 본 연구의 참여자는 극락환생을 좋은 죽음이라고 여기고 있다.

본 연구결과 유교적 관점에서의 좋은 죽음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유교는 우리나라의 삶에 스며들어 있는 생활 종교로써, 장자는 죽음을 자연의 섭리로 보았는데, 죽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위협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삶의 집착에서 벗어나 죽음에 대해 달관하도록 만들어 준다[68]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유교적 죽음관도 신앙 속에서의 죽음의 기저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6.5 자손이 잘되는 것 보고 가는 죽음

‘자손이 잘 되는 것 보고 가는 죽음’은 노인 자신의 삶이 자식과 손주를 통해서 영속되는 것을 보고자 하는 욕

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27]의 연구에서 나타난 ‘자손들이 다 잘 사는 것 보고 죽는 것’과 유사하며, 여기에서는 자신의 정체감을 자손에게 이산(離散)한 노인에게 자손은 곧 자기 자신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손들이 잘 사는 것은 노인의 정체감에 있어서 중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자손들이 다 잘 사는 것을 보고 죽는 것은 노인들에게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한국사회에서는 사회관계 중에서 가족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며 특히 자녀들에게 투영되는 삶이 중요하다. 한국노인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자녀들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25][69][70] 자손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가는 죽음이 성공적 노화이자 좋은 죽음인 것이다.

또한, 유교에서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독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조상의 뿌리로 하여 태어나는 것이며, 나를 출발점으로 또 무수한 자손이 뻗어나간다고 보았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의 모습으로 영원히 이어져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71], 유교적 신념에서는 한편으로 인간의 죽음이란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것이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후손으로 무궁히 이어진 핏줄의 생명 속에 자신이 부분으로 살아있다는 확신이 죽음에 대한 유교적 달관의 방법이라 하였다[72]. 바로 이러한 유교적 사상이 ‘자손이 잘 되는 것 보고 죽는 죽음’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무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무속에서는 한국인의 경우 조상과 자손이 한 덩어리로 개인의 삶이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의 생명으로 살아 이어진다는 일종의 종속적 부활의식을 갖고 있는데[73], 이러한 종속적 부활의식이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도 투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V. 요약 및 제언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인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과 경기지역 및 충청지역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350명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면담에 관한 동의를 받고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2월 까지 5개월에 걸쳐 이루어 졌으며 질적연구방법론을 수강한 연구자와 대학원생들이 직접 자료를 수집하였다. ‘좋은 죽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개방형의 1개 문항으로 면담하였고, 수집된 자료로 내용분석을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6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6개의 범주 중에서 ‘편안한 모습으로의 죽음’이 61.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주변사람을 배려하는 죽음’을 좋은 죽음으로 여기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15.3%로 2 순위였고, ‘원하는 삶을 누리다가 가는 죽음’을 13.8%로 3 순위였다. 따라서 노인은 편안한 모습으로 죽는 것을 좋은 죽음으로 여기는 노인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하위범주인 ‘주변사람을 배려하는 죽음’에서는 ‘배우자와 비슷한 시기에 함께하는 죽음’, ‘어느 누구에게도 폐 끼치지 않는 죽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죽음’으로 묶였다. 주변사람을 배려하는 죽음에서는 우리문화가 유교문화와 개인주의보다 집단주의 문화 성격이 강한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남을 먼저 배려하는 미덕으로 여겼기 때문에 주변사람을 배려하는 죽음을 좋은 죽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하위범주인 ‘천수를 누리는 죽음’에서는 ‘적당한 수명을 누리는 죽음’, ‘명을 다하는 죽음’으로 묶여졌다. 천수를 누리는 죽음은 ‘오래 살고 복을 많이 누리다가 죽은 사람의 상사(喪事)를 ‘호상(好喪)’이라 하였고 적당한 수명까지 명을 다할 때까지 사는 것을 좋은 죽음이라고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하위범주인 ‘내 집에서 맞이하는 죽음’에는 ‘내 집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만 묶였다. ‘집’은 물리적 환경으로서의 주택의 의미와 심리적 장소로서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으며 즉, 친밀감, 사회적 관계, 자아정체감, 사생활과 피난의 장소, 계속성, 개인화된 장소, 활동의 근거, 성장하고 부모가 살고 있는 원초적인 곳이기 때문에 내 집에서 맞이하는 죽음을 좋은 죽음이라고 여기고 있다.

넷째 하위범주인 ‘편안한 모습으로의 죽음’에서는 ‘평온한 죽음’, ‘잠자는 듯한 죽음’, ‘아프지 않고 맞이하는 죽음’, ‘임종과정이 길지 않는 죽음’으로 묶여졌다. 편안

한 모습으로의 죽음은 신체적 측면에서의 편안함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두려움이나 정신적으로 고통 없이 영적으로도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하위범주인 ‘준비된 죽음’에서는 ‘준비된 죽음’으로만 묶였다. 준비된 죽음은 한 인생을 살고 가는 죽음에서 마무리를 잘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하위범주인 ‘원하는 삶을 누리다 가는 죽음’의 범주에는 ‘삶의 최선을 다하고 맞이하는 죽음’, ‘삶을 즐기고 맞이하는 죽음’, ‘베푸는 삶을 살고 가는 죽음’, ‘신앙 속에서의 죽음’, ‘자손이 잘 되는 것 보고 가는 죽음’이 하위범주로 나타났다. 즉 삶의 마지막까지 여가를 즐기고 남에게 베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자신의 자손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 자손의 삶 속에서 자신이 영속되는 삶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에서 좋은 죽음이란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는 웰빙과 같은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즉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좋은 죽음을 맞게 한다는 것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 좋은 죽음은 단지 ‘죽음’의 순간만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포함시켜 의미하고 있었다.

2. 제언 및 제한점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변사람을 배려하는 죽음’에서 죽는 순간까지도 다른 사람과 자녀를 배려하는 노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죽음 순간까지도 가족과 함께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를 보여주는 것으로, 핵가족화 및 노인단독가구가 증가하는 고령화사회에서 노인과 가족, 노인과 젊은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3세대 주택의 개발이라든지 노부부 부양세대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회적으로는 3세대 공동 프로젝트 등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둘째, ‘천수를 누리는 죽음’은 생명과 주어진 수명에 대한 노인의 소망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노년기 자살이 급증하는 현 세대에서 많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즉 천수

를 누리는 죽음을 좋은 죽음이라고 여기면서도 노인 자살률이 급증하는 아이러니는 노년기 삶의 어려움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노년기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원도 필요하겠으나 노인 스스로도 삶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노인교육과 상담이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이 ‘내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노인이 생활해왔던 편안한 집에서 사망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기반 한 노인재가복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의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돕는 의료적 차원과 복지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넷째, ‘편안한 모습으로 죽음’에서 노인들이 무의미한 생명연장을 원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년기 죽음의 방법에 대해 노인과 가족, 의료진과의 합의가 필요할 것이며, 죽음준비교육에서는 노인의 편안한 죽음을 위하여 사전의료지시서 작성과 관련된 교육을 통하여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준비된 죽음’은 삶의 마무리를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본 6가지 주제와 모두 맞물려 있는 것으로 자신의 고유한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완성된 마무리를 통해 자아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죽음준비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제공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최선을 다하고 맞이하는 죽음’은 노인이 남은 삶을 즐기고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바람과 관련되어 있으며 다른 연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결과이다. 따라서 노년기 여가를 잘 즐기며 행복한 노후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노년기 여가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노인이 일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가를 누리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여가를 누리보고자 하는 노년기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여가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341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면담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현 세대를 살아가는 노인이 인식하는 좋은 죽음의 사회적 문화적 함의를 찾아봤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과 좋은 죽음에 대해서 1회성 심층면담을 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심층적

면접을 통해 노인이 인식하는 좋은 죽음의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 웰다잉(well-dying)은 곧 웰빙(well-being)과 같은 맥락이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즉, 좋은 죽음과 관련된 연구가 모든 연령 군 특히 청소년기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삶과 죽음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1] 김정자, *종교참여에 따른 노인의 죽음불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2] 김태현, 손양숙,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노년학*, 제4권, 제1호, pp.3-19, 1984.
- [3] 김혜련, *노인이 지각한 죽음에 대한 불안도: 유료 및 무료시설과 재가노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4] 이에중, *노인의 죽음준비 인식과 죽음불안에 관한 연구*, 카톨릭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5] 김대복, *노인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와 불안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6] 김은미,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 및 임종 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석사논문, 2002.
- [7] 김승연, *배우자 사별이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8] 서혜경, “한·미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제7권, 제1호, pp.39-59, 1987.
- [9] 양혜정, *내외통제성과 사회적 지지에 따른 노인의 죽음 불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10] 장미란,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 [11] 김시원, *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성격유형에 따른 죽음태도 및 죽음준비교육요구*,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12] 김선화, *죽음준비 교육이 노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13] 배민아, *죽음준비교육의 기독교적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3.
- [14] 서문진희, *죽음준비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및 공과 개발*, 침례신학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15] 안황란, “노인죽음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죽음준비 교육프로그램 개발”, *정신간호학회지*, 제8권, 제1호, pp.44-68, 1999.
- [16] 이영화, *죽음준비 교육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17] 이이정, *노인학습자를 위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3.
- [18] 오지현, *좋은 죽음의 의미*,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19] 이경주, 황혜경, 라정란, 홍정아, 박재순, “좋은 죽음의 개념 분석”, *호스피스논집*, 제10권, 제1호, pp.23-39, 2006.
- [20] 조명옥, “노인이 인식한 죽음의 의미와 준비에 관한 문화 기술적 탐색 사례연구”, *한국노년학회지*, 제25권, 제6호, pp.1-35, 1997.
- [21] 조상희, *좋은 죽음에 관한 주관성 연구*, 부산카톨릭대학교 간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22] 조계화,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품위있는 죽음”,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6권, 제1호, pp.72-78, 2010.
- [23] 정현숙, *일개지역 의사와 간호사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부산카톨릭대학교 생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24] 김귀분,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 조사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학위논문, 1977.
- [25] 김미혜, 신경림, 강미선, 강인,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에 대한 경험”, *한국노년학회지*, 제24권, 제2호, pp.79-95, 2004.
- [26] 김신미, 이윤정, 김순이, “노인과 성인이 인식하는 ‘좋은 죽음’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제23권, 제3호, pp.95-110, 2003.
- [27] 한나영, 정유석, 윤홍주, 유선미, 박인환, “좋은 죽음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 *가정의학회지*, 제23권, 제6호, pp.769-777, 2002.

- [28] 김귀분, 김은숙, “노인의 소망”, 성인간호학회지, 제14권, 제3호, pp.438-448, 2002.
- [29] 오진탁, 죽음, *삶이 존재하는 방식*, 서울: 청림출판사, 2004.
- [30] 김승혜, 김홍철, 이수자, 정승석, 이지수, 류인희, 최준식, 정양모, 김경재, 이희수, 황필호, *죽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창, 1990.
- [31] Debate of the Age Health and Care Study Group, *The future of health and care of older people. the best is yet to come*. London: Age concern, 1999.
- [32] J .Q. Benoliel, *Multiple meanings of death for older adults*, Newbury Park: Sage, 1991.
- [33] 김은숙, 김귀분, “노인의 소망” 성인간호학회지, 제14권, 제3호, pp.438-448, 2002.
- [34] 이영희, 고성희, “노인의 죽음관- 전북 일성 지역을 중심으로”, 성인간호학회지, 제11권, 제1호, pp.135-145, 1999.
- [35] 김덕진, 고진수, 양명환, “대학생의 해양스포츠 참여동기에 대한 내용분석”, 제주대학 해양스포츠연구, 제2권, 제1호, pp.19-29, 2012.
- [36] E. Guba and Y. Lincoln, *Effectives evaluation*.nsan-Francisco: Jassey & Bass, 1981.
- [37] 김현경, *난민으로서의 새터민의 외상회복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38] 최정혜, “가족주의 가치관과 효 및 부모부양의식의 세대별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7권, 제9호, pp.85-101, 1999.
- [39] 최재석,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민조사, 1965.
- [40] 장성숙, “한국문화와 현실역동상담의 상담자-내담자 관계”, 한국심리상담학회지, 제15권, 제2호, pp.147-160, 2003.
- [41] L. M. Wilkes, “Nurses’ descriptions of death scenes,” *Journal of cancer care*, No.2, pp.11-16, 1993.
- [42] S. A. Payne, A. Langley-Evans, and R. Hillier, “Perceptions of a “good death” : a comparative study of the views of hospice staff and patients,” *Palliat Medicine*, Vol.10, No.4, pp.307-312, 1996.
- [43] 강인, 최혜경, “여성의 배우자 사별 스트레스 적응 과정에서 개인 내적 요인들의 중 재적 역할”, 대한가정학회지, 제36권, 제4호, pp.95-107, 1998.
- [44] 김태현, 한혜신, “사별노인의 재혼에 관한 연구-서울시 재혼노인의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회지, 제16권, 제1호, pp.18-38, 1996.
- [45] C. M. Parkes, “Loss and Recovery,” *Journal of social Issue*, Vol.44, No.3, pp.53-65, 1988.
- [46] M. F. Dimond, “Gender difference through two years of bereavement among the elderly,” *The Gerontologist*, Vol.26, No.5, pp.314-320, 1986.
- [47] B. Raphael and K. Nunn, “Counseling the Bereaved,” *Journal of social Issues*, Vol.44, No.3, pp.191-206, 1988.
- [48] 전길양, 김경옥, “배우자 사별노인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및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제1호, pp.55-170, 1997.
- [49] 윤현희, *남녀 노인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심리적 적응감*,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50] 임연옥, 박재연, 윤현숙, “배우자 사별 노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의 변화와 그 예측요인”, 노인복지학회지, 제50권, 제1호, pp.123-144, 2010.
- [51] 김현숙, *여성노인의 호상 체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52] 장재선, *노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수용에 관한 연구 - 대전·충남지역을 중심으로 -*,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53] 최윤선, 김장옥, 신승옥, 이영미, 이태호, 홍명호, “말기환자 관리에 대한 의사들의 태도”, 호스피스 논문집, 제3권, 제1호, pp.25-32, 1996.
- [54] K. Dovey, “Home and Homelessness, I. Altman and C. M. Werne(eds.) *Home Environments*,” pp.33-34, N. Y: Plenum.Press, 1985.
- [55] 최래옥, “민속 신앙적 측면에서 본 한국인의 죽음관”, 비교민속학회지, 제17권, 제1호, pp.5-480,

1999.

[56] 임돈희, 김이희, “병립신관과 한국문화”, 비교민속학회지, 제20권, 제1호, pp.87-120, 2001.

[57] 황루시, 팔도, 서울: 대원사, 1989.

[58] 최정호, 변재준, 이사라, 한승헌, “서울 시내 여성 노인이 원하는 임종 장소”, 가정의학회지, 제22권, 제6호, pp.939-945, 2001.

[59] 김상우, “한국의 도시화에 따른 무속적 죽음관의 변화”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23권, 제3호, pp.305-330, 2007.

[60] 이상호, “오복 개념을 통해 본 유교의 행복론”, 동양철학연구, 제60호, pp.134-161, 2009.

[61] 박영민, 품위 있는 죽음, 한양대학교 임상간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62] 김순미, 하춘광, 김효순, “내세관과 죽음준비도 및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지, 제16권, 제1호, pp.111-136, 2011.

[63] 김명숙, “‘좋은 죽음’과 유학의 죽음관”, 동양사회사상학회지, 제19호, pp.165-198, 2009.

[64] 이가옥, 이지영, “남성 연소노인의 은퇴 후 적응과정과 노년기 조망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지, 제5권, 제1호, pp.3-120, 2005.

[65] 박광연, 기독교 신앙이 죽음수용에 미치는 영향: 충남지역 기독교 노인 신자들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66] 홍진국, 인간죽음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고찰, 광주 카톨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67] 김정희, “죽음에 대한 소고: 주요종교의 죽음관을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회지, 제18권, 제12호, pp.229-240, 2005.

[68] 정병석, “논어와 장자에 보이는 죽음관”, 동양철학연구회, 제55호, pp.45-77, 2008.

[69] 백지은, 최혜경, “한국노인들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 유형 및 예측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3권, 제3호, pp.1-16, 2005.

[70] 박경란, 이영숙,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 한국노년학회지, 제22권, 제3호, pp.53-66, 2002.

[71] 배민아, 죽음준비교육의 기독교적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72] 이동희 역주, 논어,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8.

[73] 신월균, 한국의 민속신앙, 서울: 집문당, 1996.

저자 소개

이 명 숙(Myoun-Suk Lee)

정희원



- 1987년 2월 : 계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학사졸업(이학사)
- 2008년 2월 :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 졸업(문학석사)
- 2012년 2월 :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 졸업(문학박사)

<관심분야> : 좋은 죽음, 노인상담, 노인정신건강

김 윤 정(Yun-Jeong Kim)

정희원



- 1993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가정관리학과(문학석사)
- 2000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가정관리학과(문학박사)
- 2001년 ~ 현재 :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노인부양, 성공적 노화, 노인 학대, 노인 자살, 부양가치관